미래를 키우는 불사, 대학생 전법

현불논단



석길암 교수
동국대 WISE캠퍼스 불교학부

청년이 미래를 만드는 원천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은 한국불교의 미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좀 더 나은 내일, 불교가 한국사회에 더 많은 기여를 하는 내일을 고민하는 불자라면, 당연히 내일의 한국불교를 이야기할 때 청년불자의 감소와 위축을 우려하게 된다.

특히 1970년대와 80년대 청년불교의 열풍을 기억하는 불자들이라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이 시기 한국의 청년불교를 주도한 집단이 바로 각 대학에서 60년대 초 시작된 불교학생회에 참여한 대학생 불자들이다. 그 청년불교의 주역, 대학생 불자 집단을 되살리고자 하는 원력이 지난 1년 우리 한국불교의 화두였다. 그리고 그 화두를 한국불교에 던진 것이 바로 상월결사다.

"부처님 법 전합시다!"

2023년 3월 23일, 상월결사 인도순례를 회향하는 자리에서 상월결사 회주 자승 대종사의 선창에 따라 한국불교 본산 조계사에서 전국으로 뻗어나간 한 목소리다. 인도순례 43일, 1167㎞의 대장정은 한국불교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성찰의 시간이었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과거를 점검하는 순간순간이 되었다. 그래서 회향의 자리에서 외쳐지고 공감을 이룬 "부처님 법 전합시다!"라는 슬로건은 참회의 불교에서 원력의 불교로, 수행 중심의 불교에서 전법 중심의 불교로 거듭나야 한다는 새로운 길에 대한 모색과 실천의 기점이 되었다.

상월결사 인도순례 회향 1주년
한국불교에 던진 화두 계속돼
내일을 향한 모두의 노력 소중

이제 그 기점으로부터 1년을 맞이한다. 짧다면 매우 짧은 1년 동안, 전국 각 대학은 물론 단위 사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층위에서 대학생 불자의 중심축을 구성하는 불사(佛事)가 진행되었다. 대학 혹은 사찰 단위에 대학생 불자회 혹은 불교동아리가 새롭게 만들어졌고, 때로는 기존의 불교학생회의 활동성을 강화하는 작업이 각 대학의 불자 교수와 불자 대학생을 중심으로 시도되었다.

다행히도 그 과정에는 상월결사는 물론이고 종단 그리고 불교계의 전폭적인 동참이 적지 않았다. 대학생 전법 지원을 위해 자승 대종사의 주도 아래 진행되었던 전법기금 모연은 성공적이었다. 비록 대종사의 갑작스런 열반에 따라 숨을 고를 시간이 일시 필요하긴 했지만, '전법' 유훈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은 그 시간에도 멈추지 않았다. 아마 대학생 전법을 위한 노력과 원력은 오늘 현재도 그리고 향후에도 상당 기간 한국불교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원천으로 작용할 것이다.

산간이 아닌 도심의 불교, 시민에게서 동떨어진 한가한 수행지가 아닌 도심 속의 수행지를 통해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했던 상월결사의 행보가 그 중심에 있었다. 아니 조계종을 중심으로 한 한국불교계 전체가 그 새로운 흐름에 귀를 기울였고, 다시 그것은 원력 중심의 불교, 전법 중심의 불교라는 흐름으로 구체화되었다. 그 흐름의 한가운데서 우리 불자들에게 던져진 실천적 화두가 바로 대학생 전법이다.

한 번 더 그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그 흐름에 발을 들이미는 주인 정신을 우리 불자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식을 잘 키우는데, 어느 부모인들 거들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는가.

대학생 전법 원력 1년, 그 부모의 마음이 바로 우리 불교 집안의 소중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대작불사에 임하는 우리 불자들의 새로운 한걸음일 것이다.

도쿄국립박물관에도 韓사리구가 있다

세간과 출세간



이상근
(재)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가장 반가운 분이 돌아온다. 바로 보스턴미술관 소장 은제도금라마탑형 사리구다.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떠났으니, 누구는 100년 만이라고 하고 누구는 85년 만이라고 한다. 85년이라고 정확한 햇수를 말하는 이는 1939년 보스턴미술관이 사리와 사리구를 취득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서다. 당시 일본인이 운영하던 야마나카(山中) 상회는 일본은 물론 미국·프랑스·영국·중국 등에 지부를 두고 한국의 유물을 판매했고 이때 보스턴미술관이 입수했다.

1939년 이전의 기록은 확인할 수 없지만, 이 같은 역사적 배경과 사실 그리고 인체 성분이 있다는 사리의 성분 검사 결과 등으로 윤리적 문제에 직면한 보스턴미술관은 2009년 반환 협상을 시작한 이후 15년 만에 환지 본처를 결정했다.

부처님 3분(석가모니불, 연등불, 정광불)과 출신 배경이 인도 왕자인 지공 선사와 나옹 선사의 사리가 각자 모셔진 소형 사리구와 모두를 담은 사리구는 한국불교의 법맥이 어떻게 전승됐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나옹 선사의 후학이 조선을 개국한 무학 대사이니 고려와 조선의 역사를 보여주는 중요 상징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전체 역사를 보여주는 사리함은 공예품이 아니라, 계승돼 미래로 전승돼야 할 역사이다. 추후 협상을 통해 반드시 되찾아야 할 성보이다.

사리 소장은 박물관 윤리 위배
도쿄博에 韓불교 사리구 확인
전수조사 및 환수운동 필요해

도쿄국립박물관에 있는 한국의 불상, 불경, 범종 등 성보가 100건이 넘는다. 불상은 오구라 수집품이 49점이 있고 그 밖의 경로 입수가 20여 점이다. 그중에는 사리구가 8건이다. 중요미술품으로 지정된 사례도 4건이다. 불상 가운데에는 국내에는 없는 희귀한 사례도 많다. 공작새 등에 앉은 부처상(금동공작명왕좌상)이나 7세기 조성한 삼존불(5.3cm)과 이존불(4.4cm)도 있다. 신장, 공양주, 나한 등 각종 캐릭터가 즐비하다.

지금 박물관은 윤리와 도덕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다. 국제박물관협의회 윤리강령은 박물관의 윤리적 기준으로 합법성과 공익성 그리고 출처지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소장품의 합법성을 입증해야 하고 '일정한 국가 내에서 법률상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료가 반드시 합법적인 소유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도 명시하고 있다. 즉 법적으로 합법이라고 해도 역사적으로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소장품의 출처지와 협력하고 원상회복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사리, 묘지, 문인석 등의 소장은 박물관의 윤리에도 어긋난다는 게 중론이다.

이런 점에서 도쿄국립박물관은 일본의 얼굴로서 과연 윤리·도덕적으로 충실한가를 묻지 않을 수밖에 없다.

불교계는 이번 보스턴미술관의 사리 반환이 일제강점기 피해에 대한 회복에 있어 도쿄국립박물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소장품 전수조사는 물론 사리구의 반환을 요구해야 한다.

社 說

불교계 정신건강 정책에 귀 기울여야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한 달이 남지 않았다. 조계종은 선거에 출마한 총선 후보들과 정당들을 대상으로 〈국민 행복과 전통문화 전승을 위한 정책 제안〉 자료집을 제작·공개했다. 자료집은 △국민 행복을 위한 사회적 실천 △전통문화의 안정적 전승 △문화유산 지원 강화 △생태계 보호를 위한 산림 보존 △사회통합을 위한 실천이라는 5개 장으로 구성됐다.

이중 눈길을 끄는 것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취임 이후 꾸준히 강조해온 선명상 보급에 대한 정책 제안이다.

현재 국내 우울증 환자가 100만명을 돌파한 상황에서 해외 선진국의 경우 명상체험 인구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에 발맞춰 마음산업의 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의미에서 전국의 명상센터, 템플스테이, 사찰 등의 공간과 프로그램을 활용한 선명상의 대중화는 국민 정신건강 증진에 효과가 있을 것이 분명하다.

또한, 잘못된 역사 인식과 어긋난 종교 정책으로 빚어진 과오들도 바로 잡아야 한다. 그동안 조명 받지 못한 호국의승들을 기리기 위한 '호국의승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고 사찰 자체 피해보상 근거가 전무한 제주4·3 특별법, 여순10·19사건특별법의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

선명상 보급과 '호국의승의 날' 제정 등은 다만 불교계만의 일이 아니다.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일이며, 역사를 바로세우는 일이기 때문이다. 총선 후보들은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동국대 불교 교양교재 통일화 환영한다

동국대에 입학하면 반드시 들어야 하는 교양 필수 교과목이 있다. 바로 '불교와 인간' '자아와 명상' 수업이다. 이는 서울캠퍼스와 WISE캠퍼스 모두에 해당된다. 공통으로 들어야 하는 과목이었지만 공통된 교재와 교안으로 운영되지는 않았다. 그러다보니 강의의 표준화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있어 왔다.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가 출범하고 불교 교양교과목 교재와 교안을 표준화하는 사업을 추진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이에 동국대 서울캠퍼스 불교대학·다르칼리지, WISE캠퍼스 불교문화대학은 지난해부터 불교 교양과목 공통교재와 공통교안 개발에 들어갔고, 올해 초 〈불교수업〉, 〈대학생을 위한 자아와 명상1·2〉이라는 공통 교재 제작을 마쳤다. 이에 따라 서울캠퍼스와 WISE캠퍼스는 해당 교재들을 활용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서울캠퍼스의 경우 일반 교양과목에 불교 관련 강좌를 추가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템플스테이 강좌다. 해당 강좌의 수강인원은 35명이었지만, 600여 명이 몰려 템플스테이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불교 교양과목의 공통 교재를 제작하고, 일반 교양과목에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불교 관련 수업을 신설하는 것은 모두 학생들에게 불교를 전법하기 위함이다. 그리해 졸업할 때에는 불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모든 노력들은 5년 뒤 10년 뒤에는 충실한 결과로 돌아옴을 명심하고 전법에 임해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총괄국장 : 박재완 편집인 : 신중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한국불교의 미래 BTN 불교TV
초심자부터 참선 수행자까지
모두에게 길잡이가 되어줄 신규 프로그램



마음이 쉬어가는 카페 혜민입니다
방송시간 : 매주 (월)12:00, 22:30 / (토)19:30



송담스님의 이뭣고
방송시간 : 매주 (수)19:00 / (목)08:30 / (일)21:00



불교사용설명서
방송시간 : 매주 (금)09:30, 21:30 / (일)22:00



전설의 법문
방송시간 : 매주 (금)12:00, 23:15 / (일)13:00

BTN 채널안내 | GENIE TV 233번 Btv 29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